

광주·전남 3·1만세운동 피살자는 26명

■국가기록원, 1차 명부 81명 중 징용자 중복 제외한 2차 세부자료 공개

10명 현장서 희생...7명은 투옥 고초 겪다 사망

“1919년 3월 10일 광주의 작은 장날, 독립 만세의 함성이 터졌다. ... 1000명 가량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서문봉(지금의 광주우체국에서 황금동 가는 길목), 충장로 파출소, 금남로 구법원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광주경찰서 마당으로 들어서 더욱 맹렬히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수피야어고 90년사’ 중)

서울 등 다른 지역보다 10일 늦은

1919년 3월10일 광주의 옛도심인 양림동 부동고 장터에서 시작된 ‘광주 3·1 운동’을 비롯,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피살된 전남지역 독립운동가의 명부가 확인됐다. 이들과 당시 나이를 비롯, 순국 상황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당시 광주·전남 지역 만세 운동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안정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5일 이 승만 정부가 지난 1953년 작성한 3·1

운동 피살자 명부에 대한 2차 세부 분석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지난해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일정(日政)시 피징용자 명부 ▲3·1 운동 피살자 명부 중에서 우선적으로 3·1 운동 피살자 명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1차 자료를 번밀히 분석,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

지역별 피살자 명부 ▲순국 상황 ▲연령대별 현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국가 기록원측 설명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3·1운동 피살자 26명의 구체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1차 공개때 드러난 광주·전남지역 3·1 운동 피살자는 81명에 달했지만 피징용(징병)자 명부와 비교하면서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결과, 26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6명 중 10명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걸기한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독립을 부르짖으며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에 대한 일본의 무차별적인 탄압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7명은 만세 운동 뒤 체포돼 끌려 갔다가 형무소에 투옥돼 고초를 겪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형무소 투옥 중 총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구체적 타살 이유 등이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들은 8명으로 분류됐다. 국가기록원은 95주년 삼일절을 맞아 이들 분석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읍·면 단위로 이름, 나이, 주소, 순국 일시, 장소, 상황 등이 기록돼 만세 운동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순국 상황을 통한 당시 일본의 탄압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김순임(오른쪽)씨와 큰오빠 권수씨.

北 오빠 상봉 광주 김순임 할머니 인터뷰

“64년만에 만났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한국전쟁에서 헤어진 오빠를 64년만에 만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릴 적 키가 컸던 오빠가 조금 왜소한 모습에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건강한 거 같아요. 남쪽에 있는 가족들과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오빠를 위해서라도 통일된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3년 4개월만에 다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김순임(75·광주 서구 내방동)할머니는 금강산에서 보낸 사흘이 꿈만 같았다고 들뜬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김 할머니는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치고 25일 속초를 출발해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광주일보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나주에 살면서 찍은 가족 사진을 오빠에게 보여드렸더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셨어요. 추위에 약했던 오빠를 위해 홍삼과 내의를 챙겨갔는데 고마움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건강하게 꼭 다시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김 할머니는 수십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봉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을 향해 희망을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상봉을 기다리는 여러분, 언제 그날이 올까 막막하지만 건강하게 기다리면 꼭 만날 수 있다고 믿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미쓰비시 상대 추가 손해소송 내일 광주지법에 제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5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7일 아시아태평양전쟁 말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중노동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지난 1999년 3월 1일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5년 만에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김재림(85), 양영수(85), 심신애(84) 할머니와 고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78) 씨가 원고로 일본기업 미쓰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김재림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노역했다.

고 오길애 할머니는 근로정신대에서 일하던 지난 1944년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공장 건물터미에 깔려 숨진 6명 중 한 명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미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추가 소송에 참여할 유족과 피해자가 추가로 연락해 오면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민주노총 총파업

25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의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노동탄압 분쇄’,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사 선거 뒤끝도 시끄러운 서광주농협

낙선자 9명이 금품제공 의혹 수사 촉구 탄원서

최근 서광주농협에서 치러진 이사 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자가 입건된 이후 이사 선거에 탈

락한 후보들이 집단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금품 제공 정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서광주농협 이사 선거에 입후보했던 9명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의혹을 명

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밝혔다. 경찰은 이사 선거에서 떨어진 입후보자 9명이 일부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이사 선거에는 22명이 입후보해 10명이 당선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은 앞서 이사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합동조합법 위반)로 해당 농협 이사 A(68)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에 조합원 B(56)씨 집 앞에서 B씨에게 1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광주농협은 지난 2005년 이후 3번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비리에 이사·대의원 선거 비리까지 터지면서 ‘선거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닭다리 소스 왜 안주냐” 편의점서 난동 부린 여성



○~편의점에서 닭다리를 사며 ‘머스타드 소스’를 사 비스로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20대 여성이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해 경찰서행.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23)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편의점에서 구입한 치킨 한 조각을 종업

원(46)의 얼굴에 던지고, 신고받고 출동한 북부경찰 운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정장이를 한 차레 걷어차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전엔 치킨 한 조각을 구입하면 머스타드 소스를 무료로 줬는데, 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황설희수.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중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NEW **soriQ** 보청기(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지사(제이에스 메디칼) 062) 227-1700